도난 옥천사 나한상, 행방 찾았다

원명 스님, 2013년 본태박물관서 2점 전시 확인


좌측 굵은 박스 목조상들은 본태박물관서 2013년 전시된 유물들. 6월 18일 공개한 옥천사 나한상(사진 오른쪽들)과 지물, 앉은 바위 등이 똑같다.

전시 나한상 "동일 유물 맞다"
현재 개인 소장… 대여 전시해
박물관 측 "경위 파악하고 있다"

진본사진 확인 25일만의 성과
'문화재 도난 백서' 개정 필요
조계종 "백서 리뉴얼 준비 중"

도난된 고성 옥천사 나한상 중 일부의 행방이 확인됐다. 현재 도난 중인 나한상 5점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 공개된지 약 25일만의 성과다.

〈관련 기사 본지 1103호 보도〉

고성 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은 "지난 6월 18일 옥천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에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최초로 공개한 도난 옥천사 나한상 진본사진을 유심히 보면서 인터넷을 찾던 중 신문에 게재된 전시 소개 기사서 나한상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도록을 확인하니 2013년 제주 본태박물관 기획전 '다정불심(多情佛心): 조선후기 목동자'에서 도난 옥천사 나한상 2점이 전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에서 사진을 공개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록을 확인한 결과 도난됐던 옥천사 나한상과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 자세, 착의법(옷을 입은 방법), 들고 있는 지물(사자상), 앉아있는 암석의 형태 등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박물관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본태박물관 관계자는 "해당 전시는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과 김회경 교수가 참여해 이뤄졌다. 해당 유물은 개인 소장자에게 대여받아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경위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나한상 2점의 행방 확인이 가능해졌지만, 환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옥천사 측에서 1988년 도난 당시 바로 신고하고 이 같은 내용이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도 수록됐지만, 정작 중요한 도난 나한상 사진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현 개인 소장자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명 스님은 "도난된 일부 나한상의 행방이 확인된 만큼 다시 사찰로 모셔오고 싶다"면서 "종단의 〈도난 백서〉에 사진이 잘못돼 소유주가 선의취득을 주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성보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기증 등의 절차를 통해 원만히 환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사실, 문화재 구입자가 선의취득을 주장하면 피해자가 이를 되찾아 오기는 매우 어렵다. 장물의 선의취득은 절도사건 발생 후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대부분 구입자의 법적 권리가 인정돼 왔다.

이런 이유로 장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난문화재 DB화가 급선무다. 조계종도 〈불교문화재 도난백서〉가 있지만, 1999년에 발간된 것이어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유통되는 불교문화재는 대부분 도난된 장물로 봐야 한다"면서 "〈불교문화재 도난 백서〉는 현재 개정판 작업을 준비 중이다. 1990년대 제작 당시에는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고, 사찰들도 인식 부족으로 협조가 안됐다. 최근에는 사찰들의 인식이 바뀌어 제보와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옥천사 나한상과 같은 연구 사례도 있다. 〈도난 백서〉 리뉴얼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NO! THAAD' 입장 잇달아 발표

정평불 · 천성산의친구들, '사드 배치 확정' 비판 제기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국민 안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또한 경제를 공황에 빠트릴 수도 있는 망국적 조치다."

정부가 7월 13일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한 가운데, 불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의평화불교연대(이하 정평불)는 7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배치는 그 자체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에 대응할 수 없단 것이 정평불의 입장이다.

정평불은 "지난 2월 7일 발사된 북한 로켓의 1단 추진체는 폭발 뒤 수백 개 조각으로 나뉘어 흩어졌다. 이는 북한이 기만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을 의미한다"며 "사드는 목표물이 고도 105km 이상에 위치할 경우 요격이 가능한데, 이 고도에선 탄두와 기만탄의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평불은 "사드 레이더 탐지 각도인 좌우 120도를 벗어나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는 잡아낼 수 없다"며 안보적 차원서 사드를 배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은 물론, 외교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언급했다. 정평불은 "사드의 작전반경은 원래 2000km에 달해, 방향과 용량을 조절하면 언제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다. 이를 인지한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며 경제적 제재와 함께 군사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수출 · 관광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불매 운동 또는 방문 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단 우려도 함께 시사했다.

아울러 정평불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연합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평불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남

북 · 중 · 러 관계 강화 우려
환경영향평가 실시 촉구

한과 우호관계를 깨고 북한의 편에 설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포기를 압박하는 전선서 이탈해 북한과 협력관계를 도모한다면, 사드 배치가 결과적으로 북한과 김정은 체제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율 스님의 '천성산의 친구들' 또한 7월 13일 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 방침을 비판했다. 천성산의친구들은 "미국은 자국서 사드를 배치할 때 주민설득, 환경영향평가, 피해와 대책 설명 등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쟁론 중에 있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의 순서가 잘못됐고, 방향이 빗나간 처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극한의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갈등을 종식하고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재앙을 막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관점서 사드배치 문제가 재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총무원장 직선법안 11월 종회 제출할 터"

직선제특위 12일 첫 회의…월 3회 회의 열기로

총무원장 직선제 법안이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직선선출제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는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첫 회의에서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직선제 법안을 입안키로 했다.

직선제특위는 위원장 태관 스님을 비롯해 정산 · 정범 · 덕조 · 제민 · 선광 · 현민 · 성조 · 법원 · 혜수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10명과 직선 실현 대중공사 준비위원회 목종 · 허정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혜일 스님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인 특위 위원들은 11월 정기회에 직선제 입안을 내기로 하고 시일이 촉박한 만큼 월 2~3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소위 구성을 통한 효율 제고 의견도 있었지만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 체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 2~3차례 공청회를 열어 직선제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의로 참여한 것인가"는 문자를 특위위원들에게 보낸 허정 스님이 위원에서 해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공론의 장 '신대승 e-매거진' 창간

신대승네트워크 "기사 · 댓글로 누구나 참여 가능"



글쓰기 품앗이로 가꿔가는 불교계 인터넷 공론의 장이 열린다. 누구나 불교 · 사회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신대승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철 · 김성규 · 박병기 · 전준호)는 '신대승 e-매거진'을 창간했다. 웹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작성한 기사 또는 논평 등을 편집진에게 전송할 수 있으며, 타인이 게재한 글에 대해 첨언할 수 있다.

신대승네트워크 측은 "점차 월간지 형식의 PDF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더불어 웹상 토론기능과 패널참여 기능, 기사오류 수정 · 신고 기능, 소셜 기능 등 탑재할 것"이라며 "참여와 협업의 글쓰기 품앗이를 통해 교계 공론장을 풍성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설명했다.

웹진 섹션은 △신대승의 목소리 △편집진 편지 △기획 △세계 · 아시아 △교단 · 종교 △학문 · 교육 △미디어 · 공론장 △생명 · 기후 · 에너지 △인문 · 기행 △한반도 · 사회 △출판 · 트렌드 △생활수행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카드뉴스 및 슬로우-뉴스클립 란도 별도로 마련된다.

편집위원은 류지호 e-매거진 대표와 더불어 김시열 · 이지중 · 백찬홍 · 김윤길 · 백승권 · 강민지 · 민정희 · 박재현 · 윤남진 등으로 구성된다.

'신대승 e-매거진'은 정보공유와 콘텐츠의 창조적 재생산 운동 취지에 맞춰, 게시된 기사에 대해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의 3정책을 적용한다. (http://webzine.newbuddha.org)

박아름 기자

선미모 · 비구니회 25일 선학원 워크숍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상임대표 법상)과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7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선학원의 역사, 그리고 미래' 발표와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이사의 '재단법인의 운영 원리와 방법, 그리고 관련법 분석' 등이 진행된다.

특히 '재단법인 관련법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재단법인과 종교 재단법인, 불교 재단법인의 비교와 함께 종단과 재단의 갈등 및 분쟁 상황에서 공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각 주제별 발표 후에는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 전국비구니회 섭외부장 혜욱스님, 선미모 운영위원회 총무 심원스님,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제2차 평온 공개강좌
말법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 하다
고통 & 병통 해탈법
• 공 개 강 좌 일 시 :2016년 8월 31일 (수) 오후 3시
• 공 개 강 좌 장 소 : 화엄경 강원 (대구 수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3명 제한, 참가비 무료
• 예약신청 및 문의처 : 1899-9532 (예약접수 하신 분만 참석 가능 함.)
평온센터 부설-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